



사찰 납골시설과 포교

# “죽으면 절에 간다”

충북 음성 한마을선원 금왕지원. 지난 93년 건립된 이곳 영탑시설은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현재 세워져 있는 650여기중 일반인의 영탑만도 40%에 이른다.

서울 능인선원 납골당은 도심 한복판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생현생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불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장성 백양사와 부천 석왕사의 납골당도 이같은 이유로 지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모범사제는 사찰 납골시설이 우리 화장·납골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가능케 해준다. 전문가들은 불교가 우리나라 화장·납골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장이 불교의 전통장례법이라는 교리적 측면도 그렇지만 보유티업시설이나 시설설치의 용이성 등 기능성면에서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때 분명 앞서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장재문화학과 강의를 맡고 있는 정각성님은 “납골문화 선도는 사후(死後)문제까지도 불교를 통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후복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화장과 제례, 우리문화의 풍토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종단의 관심과 체계가 갖춰지면 지금보다 훨씬 발

(글 실는 순서)

- 1. 화장 후 갈 곳 없다
- 2. 시설운영 문제있다
- 3. 납골문화, 불교가 선도

## “화장은 불교전통장례법” 종단 납골전담기구 필요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은 “불교가 일반인들도 사찰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불교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화장률이 97%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죽으면 절에 간다”는 말이 등식처럼 성립돼 있고, 화장 후 상당수가 사찰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되고 있다는 실례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는 시대적으로 화장·납골문화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4일 작고한 동국대장장상태명예회장이 화장과 납골안치를 유언으로 남겼듯이 사회지도층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데다, 내년 1월부터 시한부매장제가 도입돼 묘지허용이 60년까지로 제한되고, 묘지면적도 개인 9평, 집단 3평으로 축소됨에 따

라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납골문화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종교계에서 납골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불교의 비중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불교가 개별 사찰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전담기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반해 타종교는 최근 교단이나 교구차원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다.

원불교는 화장장묘문화개선운동과 함께 1만2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등 교단차원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도 지난해부터 화장이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신학자들의 발표와 장묘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신교의 성공회와 장로회가 납골시설을 갖추고 교단차원에서 화장장제운동본부와 국민장묘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도 서울대교구의 경우 대규모 납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각 교구별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중인 해공스님(보통정사 주지)은 “이제는 범종단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납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가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포교기반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재가불자들이 무문관 면벽수행

## 도봉산 천축사 '상설시민선방' 운영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

1일 도봉산 중턱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2층 84평 규모).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받받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해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어 면벽수행 했던 용맹정진의 상징과도 같은 무문관에 ‘절구봉 수좌들’이 21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비록 머리카락은 길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재가 불자들의 몸이지만 개침의 각오는 옛 선지식들의 화두일념과 다를 바 없었다.

서울 중랑동에서 자영업하는 이병두(47, 조계종 포교사)씨를 비롯한 거사 6명과 이태원에서 패션업체를 운영하는 서부자(57)씨 등 6명의 보살, 입승 지우스님(중앙승가대 3년) 등 스님 2명은 출·재가를 떠나 하나 같이 분래면목을 보기 위해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무문관이 21년만에 상설

개방형 시민선방으로 개방되어 매 주말 열리는 철야정진에 첫 방부를 들인 ‘선객’들이다.

일단 선방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으며, 나와 남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 등 다섯 가지 서약을 하고, 묵언 금언 불음주 외출금지 등 10가지 선원규규를 지켜야 한다.

숨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청정한 이 참선도량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은 왜일까. 관음 도천 관복 천장 도영 경산 석영 현구 무불 원공 스님 등 고승들의 정진력이 아직도 이 도량을 감싸고 있는 것일까.

서울 도심에서 멀지도 않고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이곳에서 화두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여간한 인연공덕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생각에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를 곧추 편다.

주지 현공스님은 “당대의 선지식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방에서 화두삼매에 든 불자들.

들이 분분사를 찾던 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워 무문관을 다시 열게 됐다”면서 “물질문명에 휩쓸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산사에서 고승들의 체취를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불은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대웅전에서 철야 기도정진도 하고 있다. 여기에도 보통 10~15명의 불자들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보살들이다. 철야정진은 금강경 독송, 좌선, 천수경, 관음정진, 참회기도, 신중기도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02)954-1474 김재경 기자

## 문화부 '표준수화규범' 제정키로

### “불교수화 통일 서둘러야”

20일 장애인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일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200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0억 원을 투입해 ‘한국표준수화규범’

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표현방식이 서로 다른 일부 불교수화의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작업이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한국장애인협회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타종교에 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불교수화를 표

준수화규범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수화 마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불교수화는 덕신스님(조계사 장애인포교회장)과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쪽과 부산의 강주스님(부산 춘해대학 강사)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일례로 ‘불교’라는 용어에 대해 해성스님은 묵타+민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강주스님은 양손가락을 벌려 둥글게 큰

공을 쥘 듯이 하여 손바닥이 마주보게 하고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여 서로 손가락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는 등 내용이 다르다.

이밖에 ‘연꽃’ ‘예불’ ‘불도’ ‘법문’ 등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불교용어는 20개가 넘으며, 덕신스님과 해성스님 간에도 10여개 이상의 용어가 표현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3자간의 협의는 단절돼 있고, 포교원은 “내년부터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다만 두 스님과 강씨는 “이번 문화관광부의 발표에 따라 불교수화의 통일이 시급하게 됐다”며 수화발표회나 공청회 등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명우 기자

## 뉴스 & 뉴스

### 해군 해운사 법당 낙성

해군 2함대 사령부 해운사는 최근 군부대를 이전하고 새 법당을 건축해 3월31일 법당 낙성 기념법회를 열었다. 낙성 법회에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해군 제 2함대 사령부 남해일 사령관, 군불자들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새 법당은 6백여명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120여평의 대웅전을 비롯해 40여평의 대종식당과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김지연 기자

### 관문사 거사회 창립

천태종 서울 관문사 거사회가 9일 창립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관문사 부주지 춘광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최인영씨(주 삼미축산 회장)가 선출됐다. 관문사 거사회는 매일 둘째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정기산행으로 친목을 쌓는 등 회원매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숙 기자

### 불교활동 연구비 지원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공서)는 22일까지 ‘21세기 한국불교학의 과제’를 연구주제로 불교활동 연구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응모자는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연구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02)725-6231~2 김재경 기자

## 조계사, 새벽5시부터 중무서비스

“중무원들이 새벽같이 나와 애쓰니까 신도들이 한결 편하게 됐어요. 또 서로가 가까워진 것 같고 인정도 느껴지고요.”

10년째 조계사 새벽기도를 다닌 윤신덕행 보살(50)은 새벽 5시부터 나와 중무소임을 보고 있는 중무원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지난 1년간 거듭내려

는 시간대인 5시부터 각종 중무서비스와 신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사 흥보담당 하정혜씨는 “이번 당직제도는 신도들의 편의를 돕고 최고의 중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무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며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해 당직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불교·원불교·천주교 여성성직자 60명 모임

### 부산에도 ‘삼소회’

부산에도 삼소회(三笑會)가 발족돼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직자들의 끈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됐다.

3.1절 윤계례순잡기 운동본부 대대식을 계기로 처음 모인 비구니, 정녀, 수녀들은 3월 27일 원불교 부산 교구청에서 만나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을 갖기로 했다.

이어 3개 종단에서 각 20명씩 참가해 60명으로 구성된 삼소회는 지난 2일에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원불교 대법회(사진)에서 ‘축하의 노래’ ‘선구자’ ‘우리들의 소원’을 함께 불러 감동을 전했다.



삼소회는 앞으로 매년 의미 있는 공연에 1회 이상 참가하고 오는 5월경 시민단체 등과 연계 환경운동,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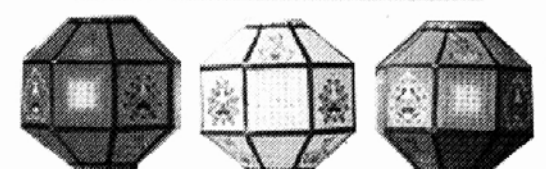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음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음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